

이재명, 텃밭 호남서 민생 행보 주력

여수산단·장흥 원예농가 등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오늘 광주 양금덕 할머니 예방...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당의 텃밭인 전남을 찾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당의 심장부인 전남 곳곳을 돌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시 국가산단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산업현장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슬프고 안타깝다"며 "국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어떤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찾고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장흥군 시설원예농가를 찾아 전기세·유류비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농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와 서민경제의 고충을 인식

하고 언제나 농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오후 7시에는 무안군 남악 신도시 복합주민센터에서 '국민보고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사항 등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청투어는 이 대표가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듣고 소통하며 국민 속에서 민주당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형 대표'를 강조했다던 이 대표의 의지로 민생행보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며 당분간 매주 전국을 돌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타운홀 미팅 등 국민과 당원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8일엔 광주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한다. 이날 이 대표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하고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이 대표가 다시 민생 일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 출석 선언을 옹호하며 당의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 "(검찰의 애초 소환 통보일인) 28일날 안 간다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이 대표가 검찰에) 간다고 예기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멋있게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말했다"며 "점심까지 결론을 못 냈었는데 오후 6시가 다 돼 대표가 (출석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이 대표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여수국가산단 내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산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비 확보 '성과'

8개 사업 109억8천만원 규모 신규 반영·증액
기재부 설득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도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 장성 심뇌혈관센터 건립 예산과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설계비 등 8개 사업에 총 109억8천만원의 국비를 증액 및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 및 신규 반영된 이개호 의원 지역구 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천 809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023년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8개 사업 109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국비 예산을 확보

한 이례적 성과의 배경에는 이개호 의원의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사업비를 475억원에서 1천94억원으로 증액해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됐던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예산이 반영된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다.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기재부의 확고한 입장이 유지될 경우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 반영이 1년 이상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업 추진 지연은 절대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개호 의원이 '선(先) 예산 반영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後) 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돌

파구가 마련됐다.

여기에 ▲장성군과의 적극적 공동 대응 ▲기재부 설득을 위한 합리적인 논리 마련 ▲보건복지위, 예결위 등 정치권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 협조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집중적 노력이 결국 25억원 반영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지자체 주최 국제행사 대한 국비 지원 기간 3년 만료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순세가 꺾인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라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함으로써 지원 기간 일몰 도래에도 불구하고 다시 5억원



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지역 발전에 필수이자 지역민 호응도가 높은 2건의 도로사업 예산 반영도 남다른 성과다.

지난해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를 이유로 기존 고서-대덕에서 창평까지로 구간이 축소됐으나 2년 차인 내년에도 바로 설계비 2억을 반영시켜 창평-대덕 구간을 조기 확대(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영광 백수 대신지구 국도 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원 반영을 통해 백수해안도로가 서남해안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특히 각 지자체의 내년 국비 예산 반영 요청이 많았던 하수관로 사업의 경우 함평군의 2개 지구를 포함 4개 군 4개소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74억원이 국회에서 증액 및 신규 반영됐다.

/김진수 기자

여수 국동항, 산림청 '실외정원' 사업 선정

주철현 "여수시민의 쾌적한 여가공간 위해 노력"

여수시 국동항이 산림청의 '2023년 생활권 실외정원 조성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10-3 등 국동항단지 내에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

하고 데크·편의시설·조명 등을 설치하는 생활권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의 생활권 실외정원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생활정원을 조성해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건강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 사업 시행을 맡아 2023년 5월말까지 실시계획용역을 거쳐 10월말에는 조성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주 의원은 "실외정원 조성을 통해 인근 수변공원과 연계해 여수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역의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여의도 클릭

이병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27일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수 기자

김희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27일 "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평가단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언론보도 등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희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정책 국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김진수 기자

광주전남 수목장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장묘 추세는?
봉분, 봉안(납골)

↓

자연장, 수목장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수목장 전문업체입니다.

상담문의
062-464-3466
고민은 좋은 자리만 놓칠 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